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여론조사꽃 제2차 정례여론조사^{ARS} 보고서

여론조사 꽃

정례여론조사^{ARS}

보고서

조사내용

성별, 연령, 지역

체감지표, 인덱스, 여론지표

체감지표

민심체감도

내가 느끼는 주변의 윤 대통령 지지층의 지지세 변화

인덱스

윤덱스: 대통령 개인 호감도

건덱스: 대통령 배우자 개인 호감도

여론지표

대통령 배우자의 국정평가 영향 정도와

국정 부정영향 요인

교차분석자료

윤 대통령 개인 호감도와 대통령 배우자 개인 호감도 교차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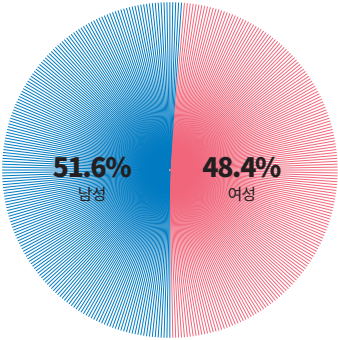
조사개요

조사방법	무선 RDD를 이용한 ARC 여론조사
모집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14명
표집방법	2022년 7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3.9% [총 통화시도 26,087명]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7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조사기간	2022년 08월 12일 14시 00분~20시 40분 2022년 08월 13일 11시 00분~21시 10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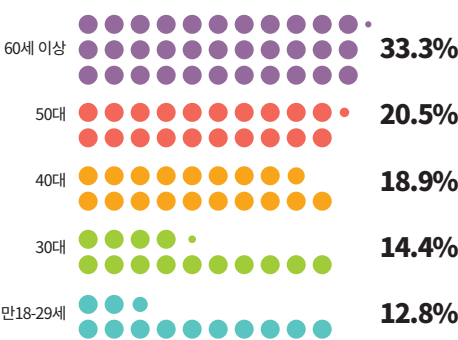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성별	전체		1,014	100.0%	1,014	100.0%	1.00
	남성	여성	523	51.6	503	49.6	0.96
연령	만18-29세		130	12.8	173	17.1	1.33
	30대		146	14.4	151	14.9	1.03
	40대		192	18.9	187	18.4	0.97
	50대		208	20.5	198	19.5	0.95
	60세 이상		338	33.3	305	30.1	0.90
지역	서울		200	19.7	192	18.9	0.96
	인천·경기		321	31.7	320	31.6	1.00
	대전·세종·충청		103	10.2	107	10.6	1.04
	광주·전라		101	10.0	98	9.7	0.97
	대구·경북		102	10.1	99	9.8	0.97
	부산·울산·경남		145	14.3	153	15.1	1.06
	강원·제주		42	4.1	45	4.4	1.07

본 조사결과는 표본조사이므로 결괏값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권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과 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단수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부 분석은 개별 응답 사례수의 오차범위를 측정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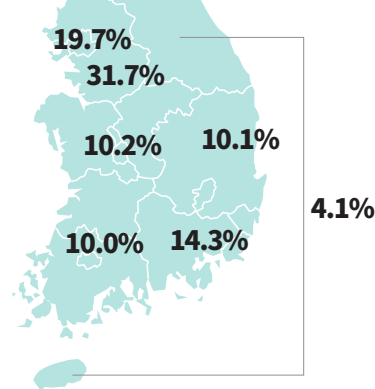
성별



연령



지역



체감지표

민심체감도

내가 느끼는

윤 대통령 지지층의 지지세 변화

인덱스

윤덱스: 대통령 개인 호감도

건덱스: 대통령 배우자 개인 호감도

여론지표

대통령 배우자 국정평가 영향 정도와

국정 부정 영향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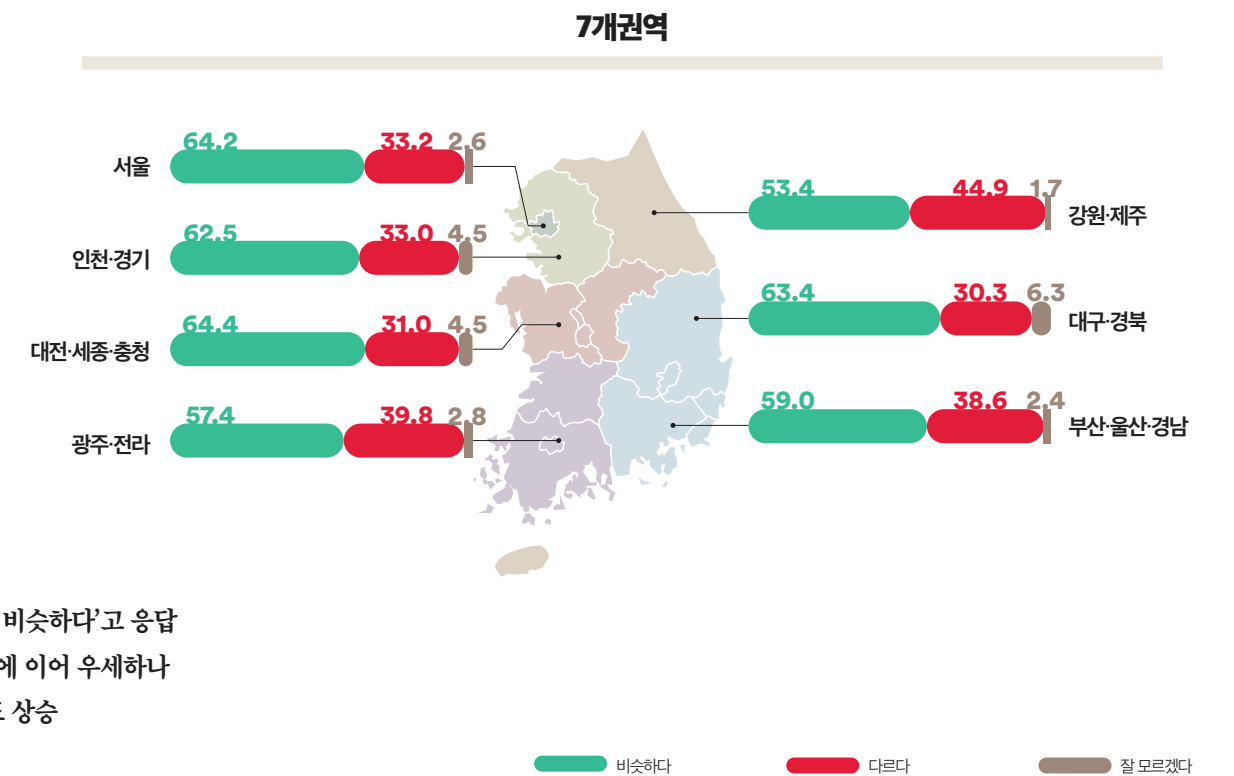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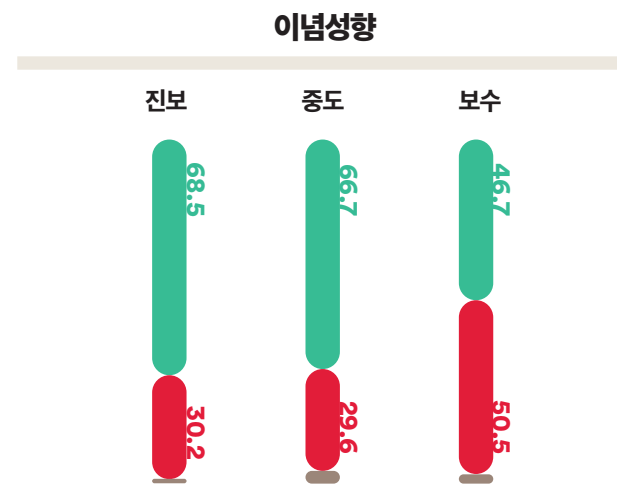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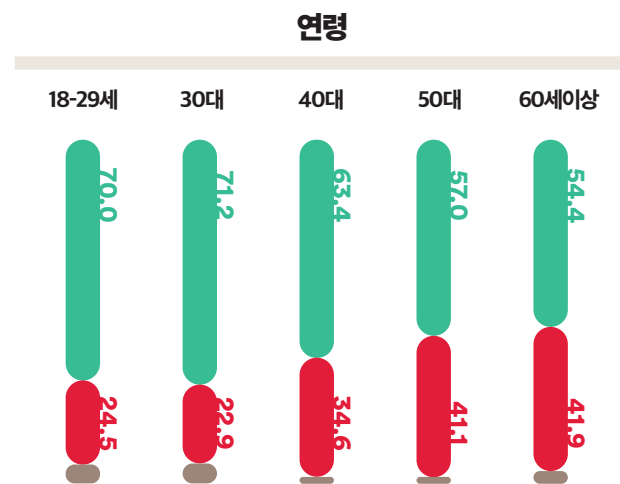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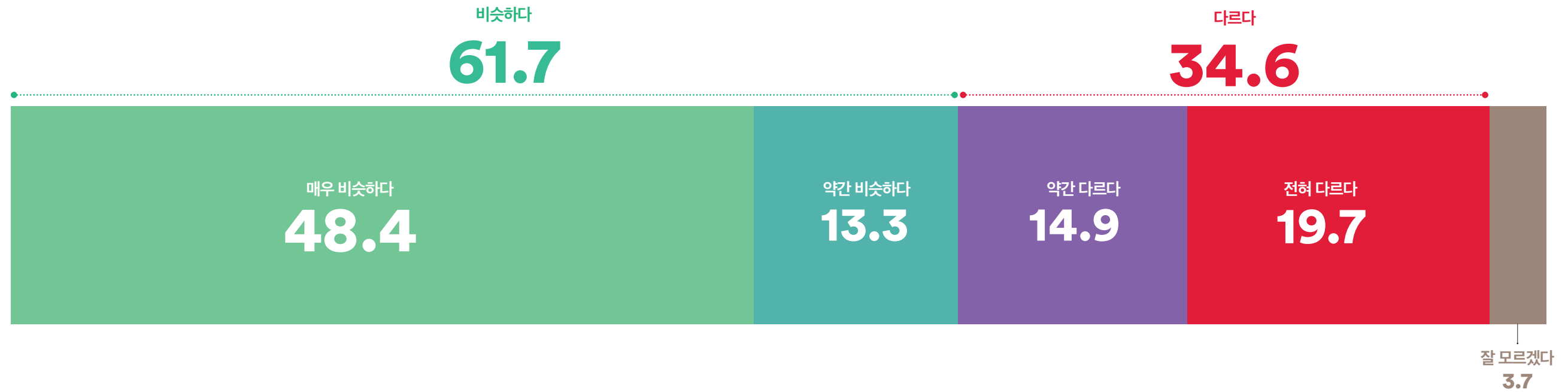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체감지표: 주변미터

민심체감도

Q. 최근 언론에서 발표되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주변 민심과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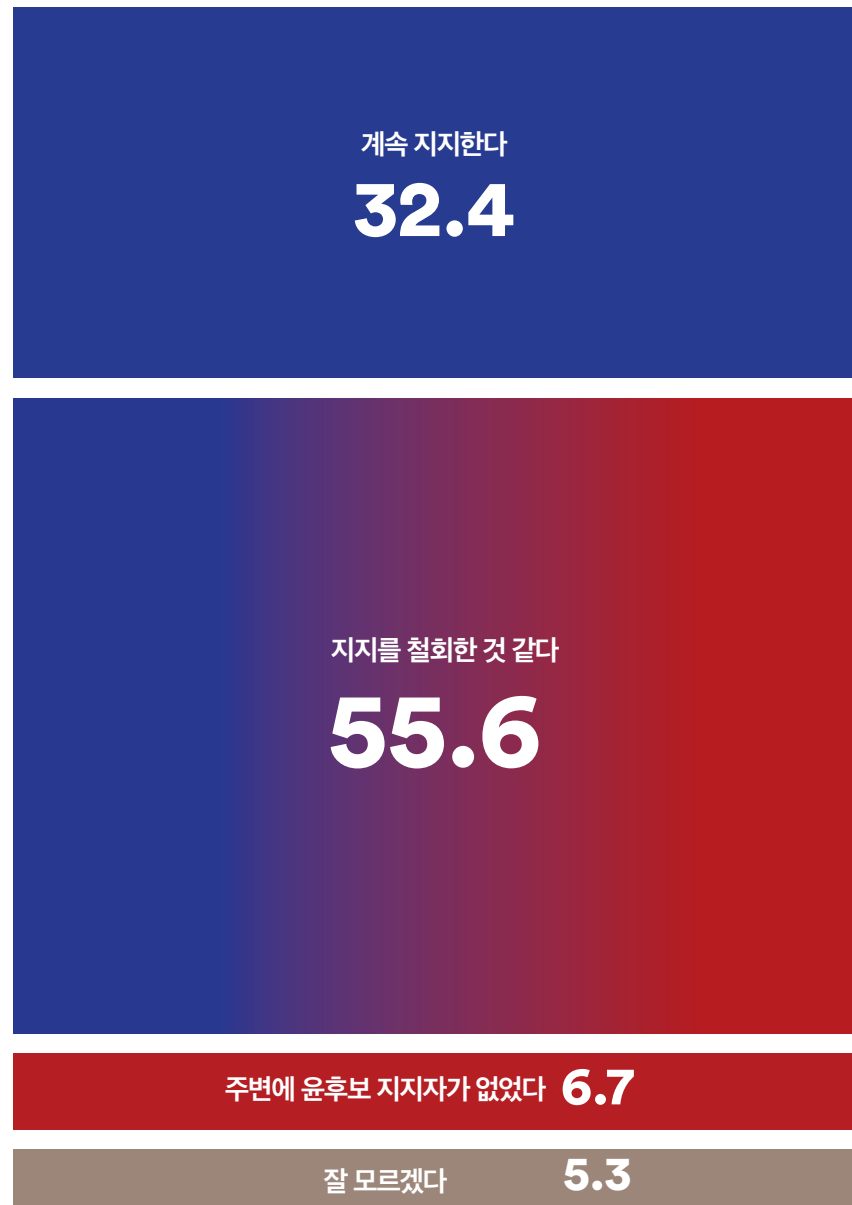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와 주변 지지율이 비슷하다'고 응답
대부분 권역·모든 성별·연령에서 '비슷하다'는 응답이 전주에 이어 우세하나
민심과 다르다는 의견이 지난주 대비 7.7%p 정도 상승

비슷하다 다르다 잘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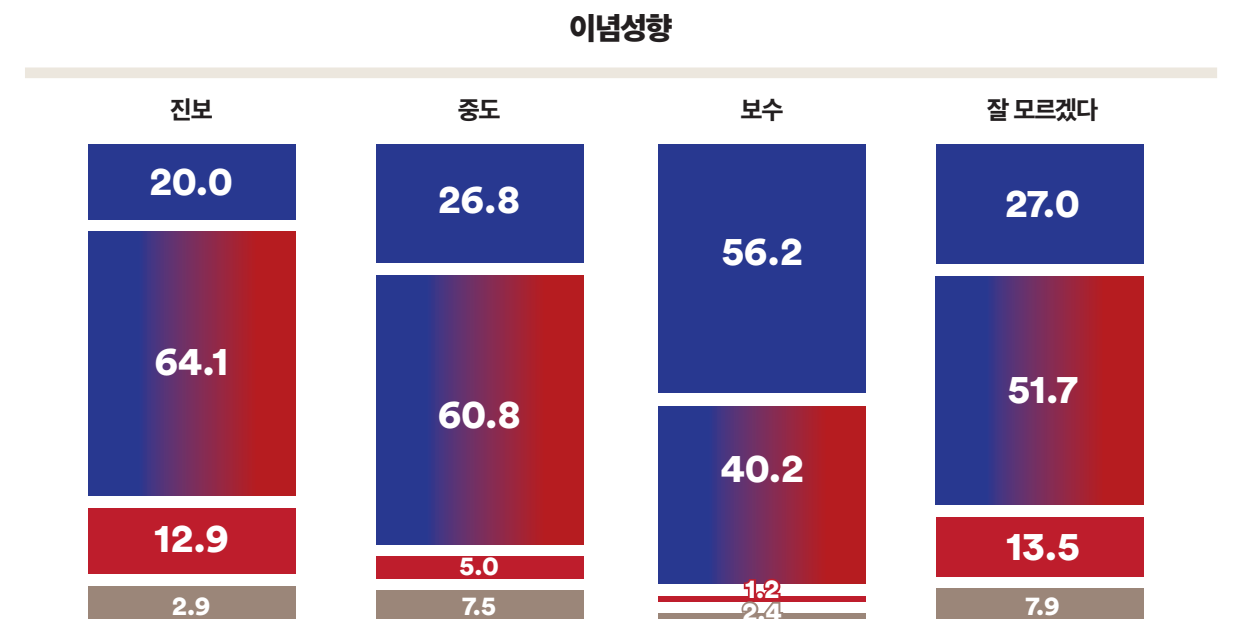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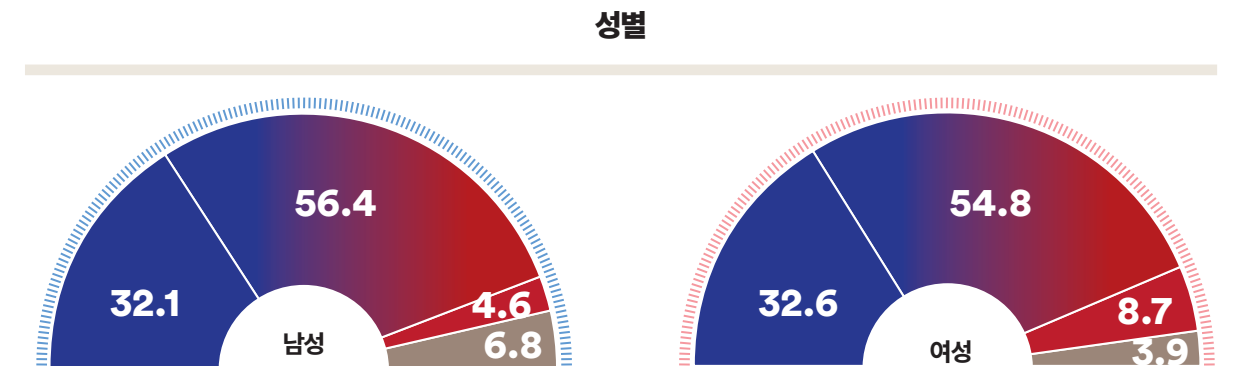
체감지표: 주변미터

내가 느끼는 주변의 윤 대통령 지지층의 지지세 변화

Q.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 주변 분들께서는 윤 대통령을 계속 지지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지를 철회한 것 같습니까?



10명 중 5명 이상은 '주변인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 같다'고 응답



'지지 철회' 응답이 '계속 지지' 응답 대비 20%p 이상 우세
 보수층·남성·50대에서 '계속 지지' 의견이 지난주 대비 상승
 여권의 전통적인 지지 세력인 보수성향의 '50대 남성층'의 결집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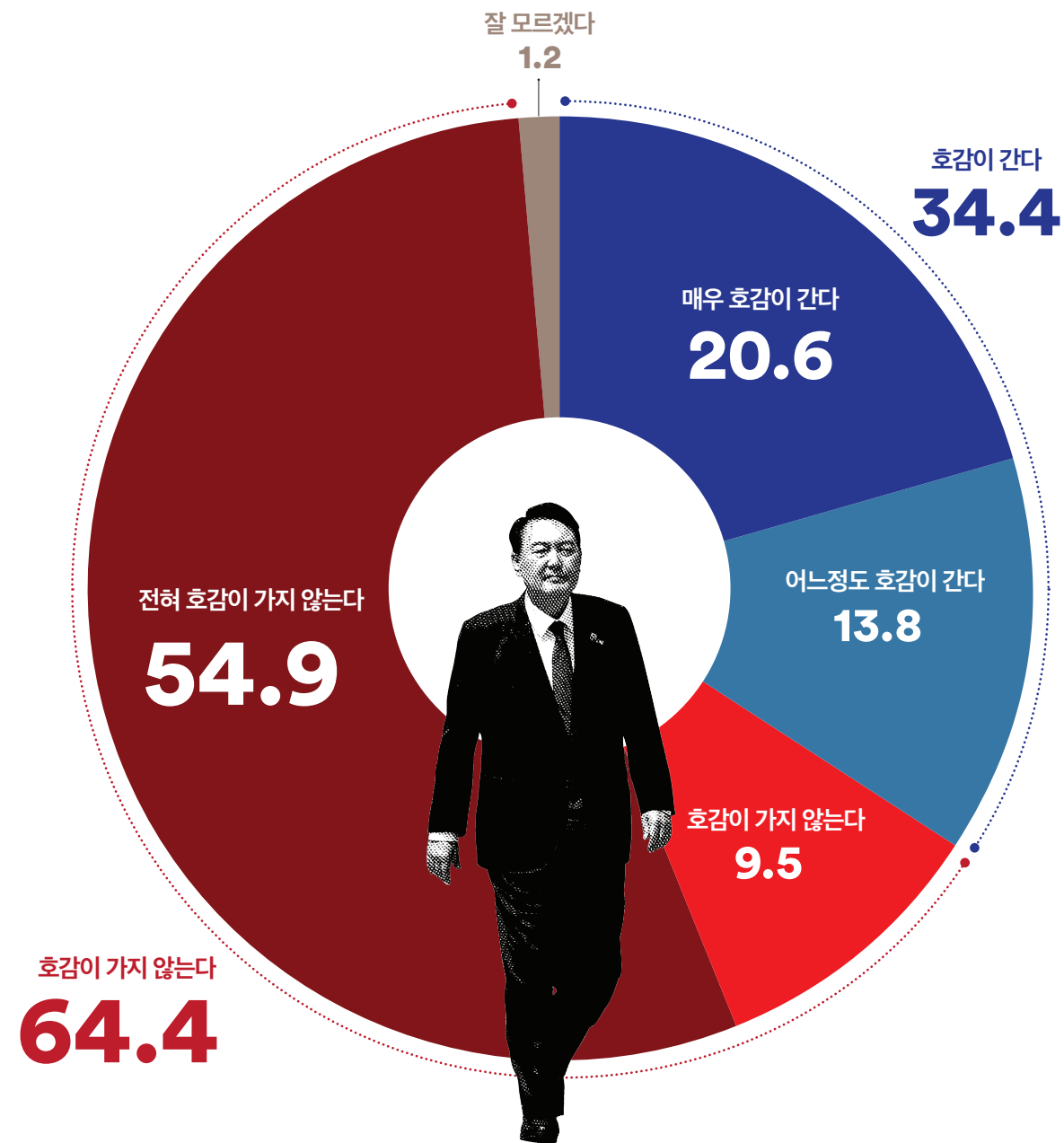
■ 계속 지지한다
 ■ 지지를 철회한 것 같다
 ■ 지지자가 없었다
 ■ 잘 모르겠다



인덱스: 윤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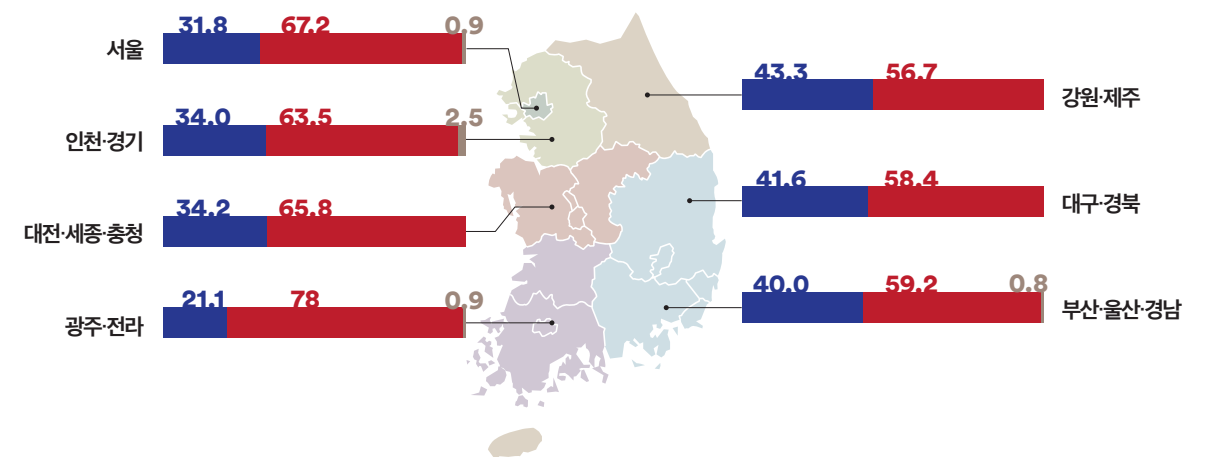
대통령 개인 호감도

Q. 윤 대통령에 대해 얼마나 호감이 가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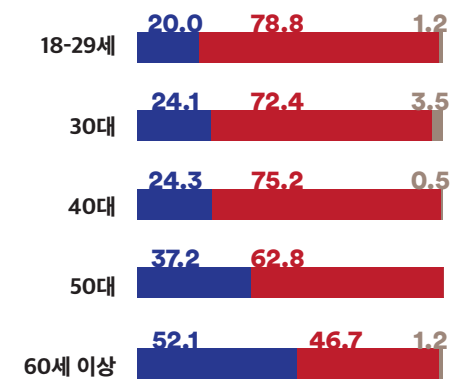


10명 중 6명 이상은 '대통령에 대해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응답
윤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와 국정 기대감, 지지율 반등 가능성이 그만큼 적다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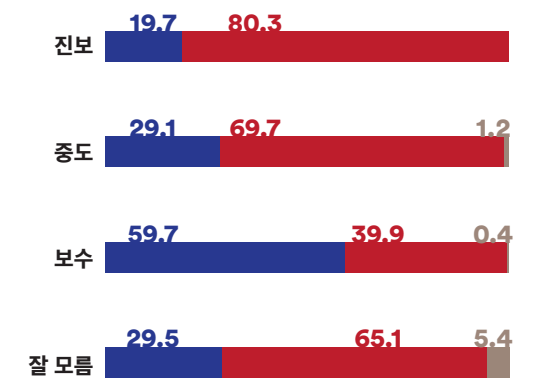
7개 권역



연령대



이념 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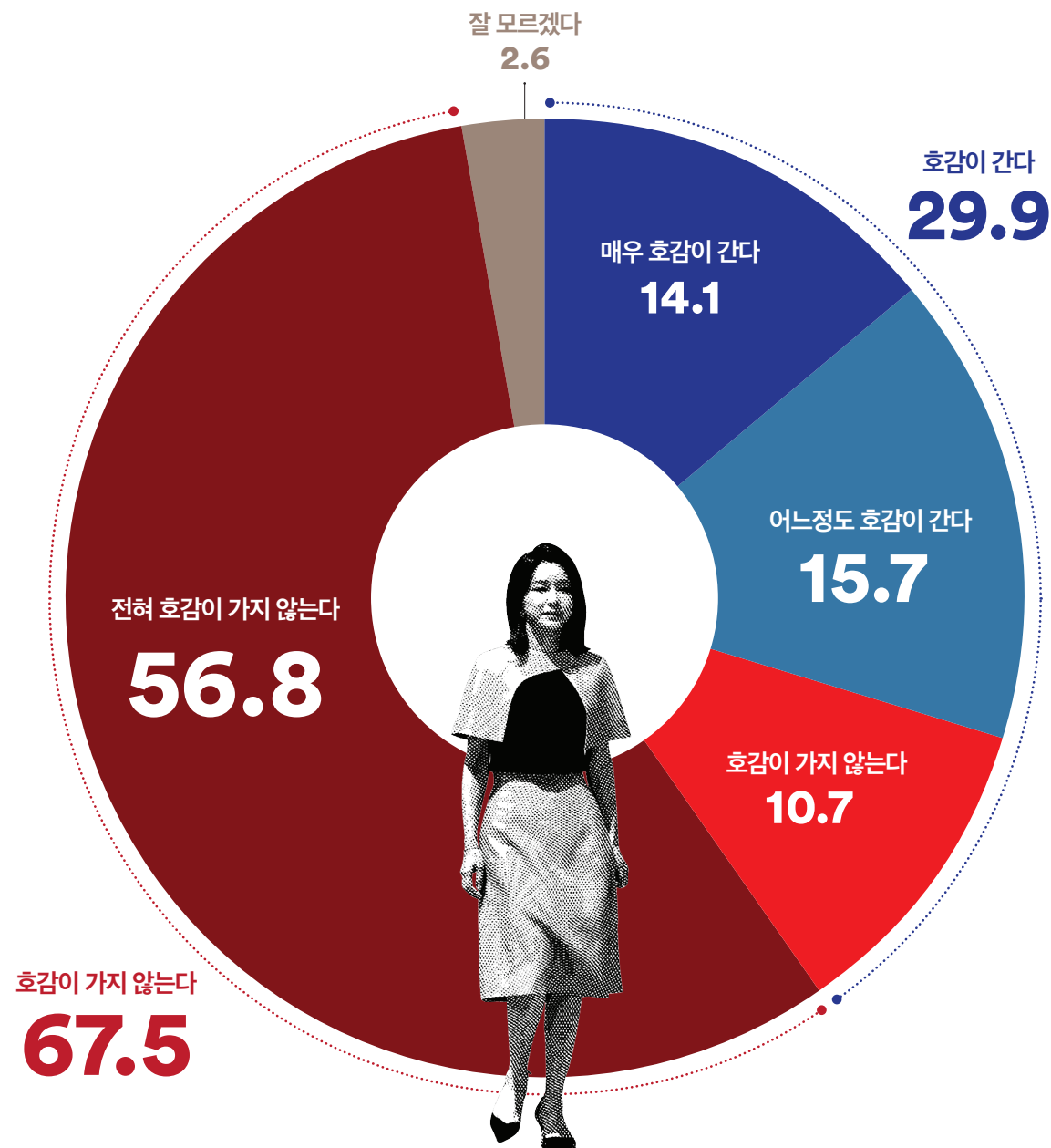
TK와 강원·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서는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
60세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비호감 응답이 우세, 특히 20대의 비호감 응답이 가장 많음
진보·중도층에서는 '비호감' 응답이 우세한 반면, 보수층은 '호감' 비율이 '비호감' 대비 19.8%p 더 높음

호감이 간다 호감이 가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인덱스: 건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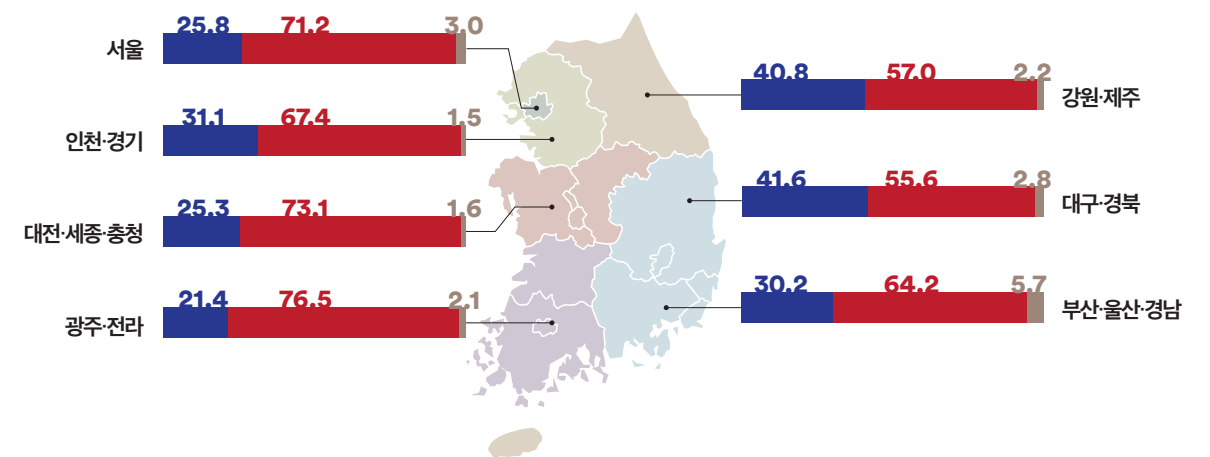
대통령 배우자 개인 호감도

Q.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얼마나 호감이 가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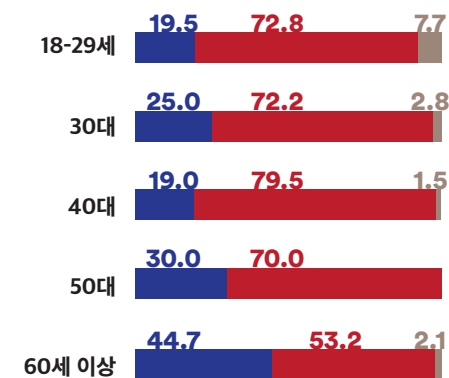


10명 중 6명 이상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응답
'김건희 신드롬'은 사라졌으며 '김건희 리스크'가 국민 인식속에 크게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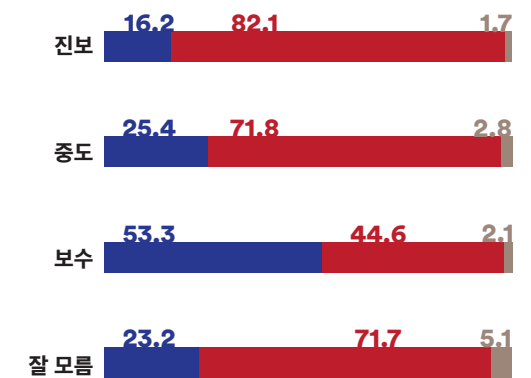
7개 권역



연령대



이념 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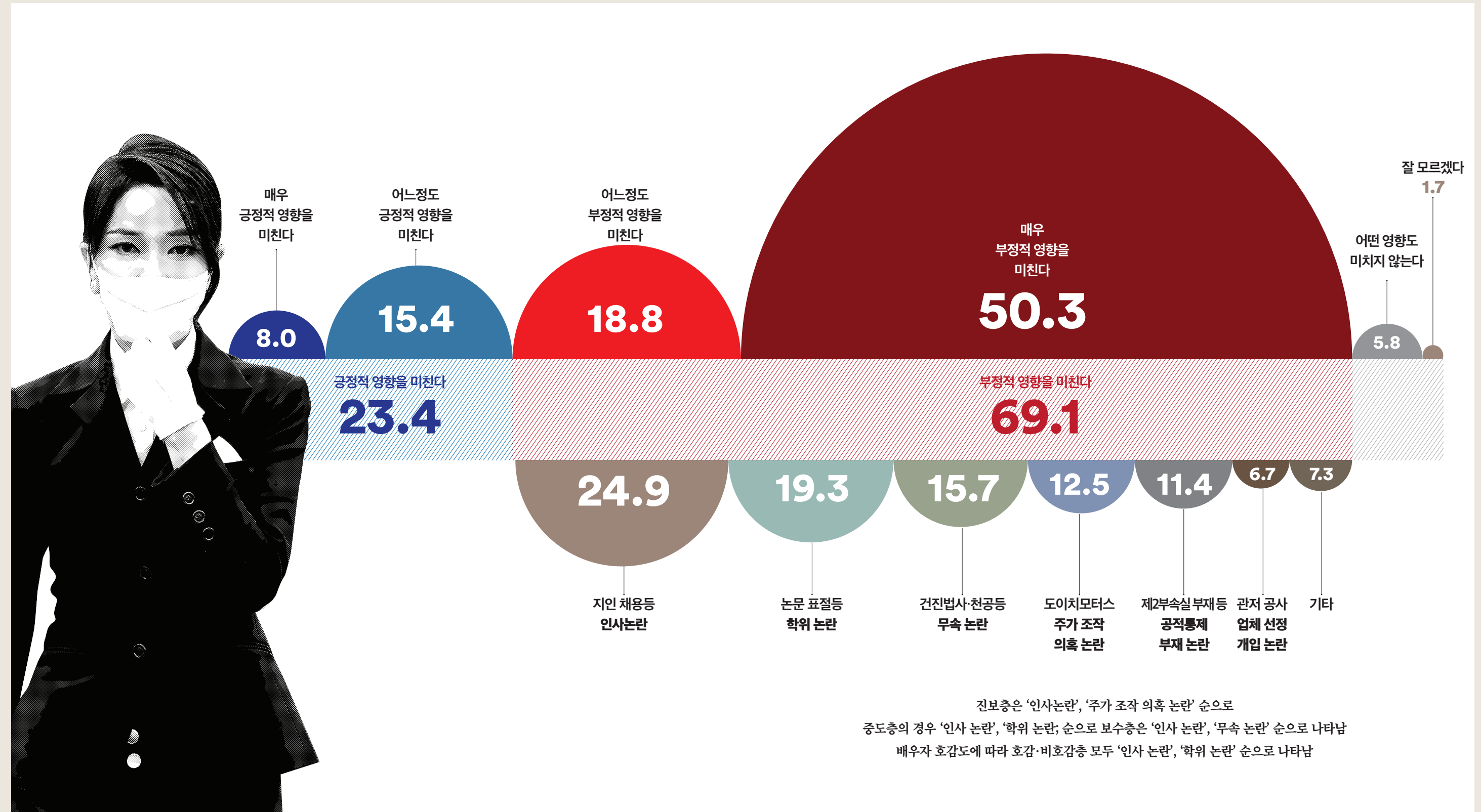
TK와 강원·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서는 비호감 응답이 우세
60세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비호감 응답 우세
보수층에서는 대통령 비호감 비율보다 대통령 배우자 비호감 비율이 4.7%p 높음

호감이 간다 호감이 가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여론지표

대통령 배우자 국정평가 영향 정도와 부정 영향 요인

Q.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논란이 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무엇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차분석자료

윤 대통령 개인 호감도와 대통령 배우자 개인 호감도 교차분석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본 자료는 ARS 여론조사 결과의 유의미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응답자의 전체적인 분포를 파악하고
향후 추세 분석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료의 결과값은 빈도 분석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각 수량은 행정안전부 7월 31일 기준 성·연령대·권역별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가중치(셀가중)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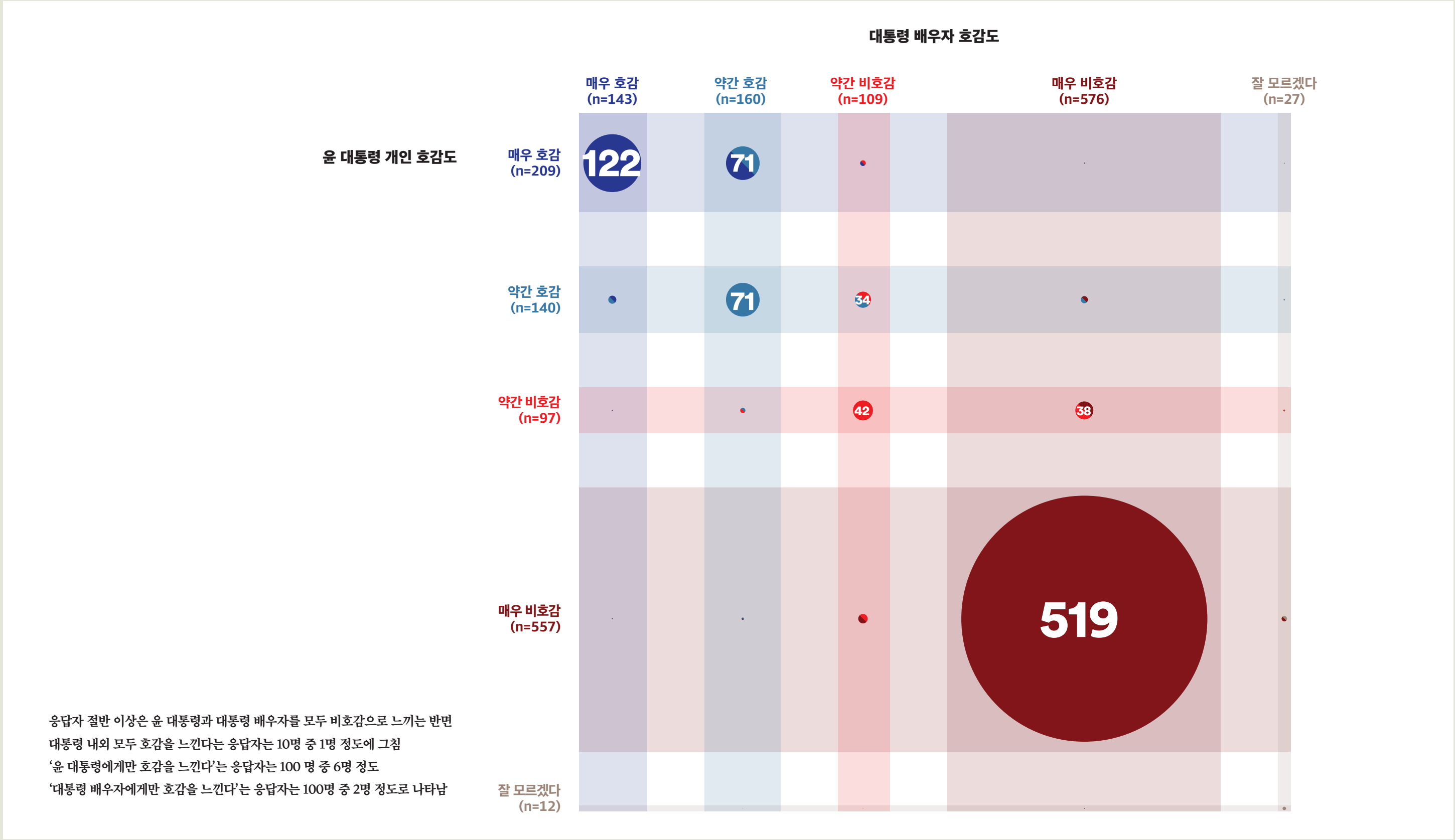
일부 응답 결과(유보 등)는 필요에 따라 제외되기 때문에
전체 단순 합은 조사완료 사례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교차분석

호감도 X 호감도

윤 대통령 개인 호감도와 대통령 배우자 호감도의 교차분석



제2차 정례여론조사^{ARS} 보고서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여론조사 

www.flowerresearch.com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콘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